

땅 끝 선교, 그 시작에서 완수까지

독서감상문 TMTC 15기 조정은

해외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떤걸까? 대학교에 막 입학해 교사선교회에 들어오기전 해외선교에 대한 경험이 한번도 없었던 나는 해외선교란 무엇일까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다. 이 책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외 선교사가 되기위한 과정을 아주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선교사로 부르심(소명)에 대한 확신: 소명의 중요성, 소명확인을 위한 과정들, 선교소명을 방해하는 요소들

둘째,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장기계획

셋째, 선교사로 가기까지 준비해야할 것들: 은사계발, 선교에 참여, 개인준비

넷째, 선교지 결정: 선교지 필요가 아닌 은사 중심의 결정, 선교단체와 협의,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지역 연구, 그밖의 고려사항

다섯째, 선교 동역자: 동역자를 개발해야하는 이유, 동역자 개발을 할 때 선교사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 동역자를 찾는 방법, 선교사의 생활수준

여섯째, 파송교회

일곱째 선교단체: 선교단체에 소속될때의 장점, 어떤선교단체인지, 선교단체 회원의 의미, 출국전 정리 및 준비

책을 읽으며 새로웠던 부분은 동역자를 개발해야한다는 점이였다.

선교사로서의 준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역자를 개발한다?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다. 동역자는 선교사와 한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다. 선교사가 존재할 때 동역자가 존재하며, 동역자가 살아 있을 때 선교사도 살아 있는 것이다. 함께 사역하는 일군이라는 것이다.

동역자를 개발해야하는 이유는 예를들어 재정후원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지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선교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위해서, 다른 선교 후보자들을 위하여, 재정동역자를 개발하면서 선교사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등이 있다.

동역자를 개발할 때 선교사 자신에게 있어서 준비해야할것도 있었다. 예를들어 동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동역자들에게 선교사로서의 가치를 심어주기, 인간관계를 잘맺는 사람이 되기 등이 있다.

이 책을 통해 해외 선교사가 되기위한 과정을 처음부터 쭉 들여다보면서 알지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을 섬세하게 알수 있던점이 매우 인상적이였다.